여종기 LG화학 사장 "기술상" 수상

과학상에 최덕인 KAIST 교수 … 제3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확정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제35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최덕인(66)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기술상에 여종기(56) LG화학 사장, 기능상에 최병만(57) POSCO 기성보, 진흥상에 강신구(62) 한서대 객원교수를 선정했다.

과학상의 최덕인 명예교수는 세계 최고수준의 플라즈마 난류이론 전문가로 플라즈마 물리학이 국내에 도입 및 정착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플라즈마가 핵융합, 천체 플라즈마, 신물질, 반도체 공정 등에 폭 넓게 이용되는데 크게 공헌했고 국내 최초로 소형토카막 장치의 설치 및 정상가동을 달성하는 등 핵융합 연구에 크게 공헌했다.

기술상의 여종기 LG화학 사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을 개발하고 PVC, PE, PS, 촉매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석유화학분야의 발전을 주도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리튬이온전지 등 정보전자소재 신제품개발 등을 통해 LG화학을 연구중심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기능상의 최병만 기성보는 제철부문의 연주기술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제강부 전문 기능인으로서 턴디쉬(용강저장용기) 내의 불순문 제거 및 공기 차단장치 개발을 통해 열간 재사용기술을 개선하고 내화물 축조 및 보수비용 절감을 위해 이층구조의 내화물 축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조업기술 전반에 걸쳐 조업기술 향상과 설비안정화,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최덕인 명예교수>

<여종기 LG화학 사장>

<최병만 POSCO 기설보>

<강신구 객원교수>

진흥상의 강신구 객원교수는 33년간 과학전문 기자로서 폭 넓은 활동을 통해 과학보도를 활성화하고 과학전문 기자의 위상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과학보도의 사회화에 주력해 수많은 과학특종 및 과학특집 기사 등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를 촉진했으며, 한국과학기자클럽과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창설을 주도하는 등 과학언론 창달에 공헌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은 1968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과학기술인에게 시상하는 전통이 깊은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은 4월20일(토) 과학의날 기념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9>